

국제테러범죄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분석*

Language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terrorism

Sang Ho Park**

College of Law & Political Sciences,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no, Busanjin-gu, Bu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shows the periodical tendency of international terror crimes reported in Chosun Ilbo, Jungang Ilbo and Donga Ilbo. It tries to provide basic material to establish academic identity for anti-terrorism. Analyzing main words for the international terror crimes that happened between 2009 and 2013, the words "Terror" and "Al-Qaeda" were the most frequent words on the newspapers. The words "Pakistan", "Bomb Terrorism", "Taliban", "Afghanistan", "Yemen" and "Iraq" appeared frequently in the newspapers in 2009. The words "America", "Bomb Terrorism", "G20" and "Iraq" appeared frequently in the newspapers in 2010. The words "Bomb Terrorism" and "Islam" appeared frequently in the newspapers in 2011. The words "Islam", "London" and "Suicide Terrorism" appeared frequently in the newspapers in 2012. The words "America", "Yemen" and "Iraq" appeared frequently in the newspapers in 2013. This shows that the international terror crimes happened mainly in Islamic areas such as Iraq. It also shows that bomb terrors as a type of international terror crimes were greatly mentioned in the newspapers.

Key words: terror, terrorism, international terrorism crime

국문초록

이 연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2009-2013년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의 핵심 주제어를 분석해본 결과 우선적으로 테러, 알카에다 등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대별로 보면, 2009년에는 파키스탄, 폭탄테러, 탈레반, 아프간, 예멘,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고,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을 밝힙니다(2013AA033).

** Tel. +82-51-890-1374. E-mail. sanghop@de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Dec. 24, 2014 / Revised: Jan. 12, 2015 / Accepted: Feb. 1, 2015

2010년에는 미, 폭탄테러, G20,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다. 2011년에는 폭탄테러, 이슬람 등의 빈도가 높았고, 2012년에는 이슬람, 미, 런던, 자폭테러 등의 빈도가 높았으며, 2013년에는 미, 예멘, 이라크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았다. 이렇게 볼 때,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에서 국제테러범죄 지역은 주로 이라크 등 이슬람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테러범죄 유형은 주로 폭탄테러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테러, 테러리즘, 국제테러범죄

1. 서론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리즘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조직에 소속된 테러리스트들은 미국 민간항공기 4대를 납치하여, 이 중에서 2대의 항공기는 맨해튼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의 남쪽과 북쪽을 공격하여 붕괴시켰다. 3번째 항공기는 펜타곤을 향했으며, 4번째 항공기는 펜실베이니아 농촌에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거의 3,000여명이 사망하였고, 재산상 손해는 세계무역센터 건물 11억 달러와 테러리즘 대체를 위한 긴급예산 400억 달러 등을 추가한다면 그 가치는 환산하기 어렵다. 9.11테러리즘 이후의 국제테러범죄는 테러단체가 공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요구조건과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의 수준이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인텔리 계층으로 충원되어 있어 더욱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다. 또한 항공기를 납치하여 세계무역센터 등에 자살공격을 하기까지 불과 1시간 이내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긴박성으로 인해 대응시간이 부족하고, 그 피해규모가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될 만큼 대형화됨에 따라 국가안보차원에서 대비하여야 하는 정치·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테러단체나 테러범들이 테러리즘을 자행하는 대상임과 동시에 그들의 테러리즘 거점 또는 은신처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최첨단 문명을 적극 이용하여 세계적인 광역망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테러리즘의 목표·대상·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테러단체나 테러범은 테러행위를 핸드폰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대중언론매체를 통해 실시간 방영함으로써 테러리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9.11 테러리즘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민·관 등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8월 국가대(對)테러리즘센터(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를 설립하였다. 동 기관은 CIA·FBI·국방부 등의 기관에서 차출된 요원이 국내 대(對)테러리즘정보를 제외한 모든 테러리즘과 대(對)테러리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고 있고, 외교·군사·국토안보 등의 모든 국가권력을 포괄하는 대(對)테러리즘 활동에 대한 전략적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테러범죄 관련 신문기사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테러범죄에 대한 경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분석의 틀

1. 언어네트워크 방법론

전통적 내용분석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최근 국내 학자들 사이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언어네트워크 방법론(semantic network analysis)이다(박한우·Leydesdorff, 2004: 1377-1388).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은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론(배연석, 2001; 신준섭·김지수, 2011: 173-203; Lim, 2002: 328-366)의 일종으로, KrKwic(Korean Words In Context)프로그램과 NetMiner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여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박한우, 2006; 사이람, 2010; 김용학, 2004). 인간은 언어를 매개로 자신의 사고와 인식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인식을 파악하고 있으므로(Pinekey, 1990: 117-126) 언어에 담긴 메시지(message)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언어네트워크에 담긴 메시지를 해석하는 전통적 내용분석기법이 많이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 내용분석방법론은 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즉, 연구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연구자가 임의로 만든 분석 항목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노동비용도 많이 들어가며, 외적 타당성이 제한되어 연구자 성향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ice & Danowski, 1993: 369-397).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분석기법이 언어네트워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분석 대상 및 분석방법과 절차

국제테러범죄의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신문기사 147건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분석대상

구분	국제테러범죄(건)
2009년	17
2010년	34
2011년	27
2012년	31
2013년	38
합계	147

국제테러범죄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의 연구절차는 3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탐색적 자료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을 통하여 자료집 논문의 주제를 자료화·유형화하였다. 다음, 핵심단어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KrKwic 프로그램으로 1차적 분류를 시도

하였다. 그리고, KrKwic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핵심단어에 대한 행렬매트릭스 방정식을 완성하였다. 마지막, 이를 바탕으로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핵심단어 간의 네트워크 연결망 내지 결합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사이람, 2010; 김용학, 2004).

III. 분석 결과

1. 핵심 주제어 분석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신문기사 중에서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테러, 알카에다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 주제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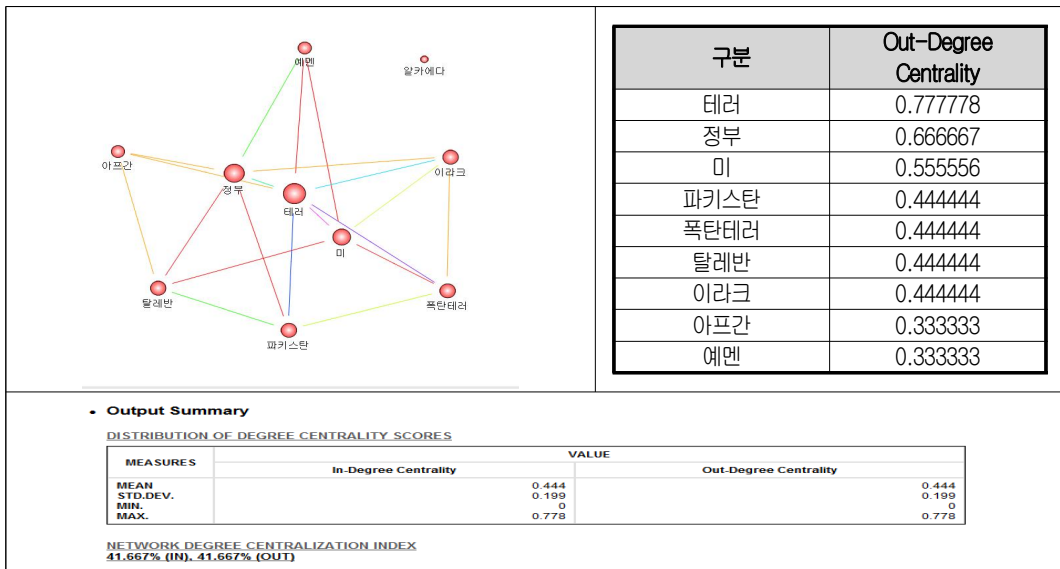
2009년		2010년		2011년	
35	테러	59	테러	46	테러
16	파키스탄	19	미	32	미
13	폭탄테러	12	알카에다	30	알카에다
12	알카에다	8	폭탄테러	10	빈라덴
10	미	7	경고	9	사망
9	탈레반	6	G20	8	911테러
8	아프간	6	이라크	7	위협
8	예멘	5	911테러	7	폭탄테러
7	이라크	5	테러위협	6	사상
6	대테러	4	소말리아	6	이슬람
6	반군	4	오바마	6	파키스탄
5	소말리아	4	이슬람		
5	인니				
2012년		2013년			
28	테러	9	테러		
7	사망	5	알카에다		
7	알카에다	3	미		
6	이슬람	3	사망		
4	미	2	예멘		
4	훈련	2	이라크		
3	런던	2	적발		
3	위협	2	전쟁		
3	자폭테러	2	태국		
3	테러단체	2	테러위협		
3	폭탄테러	2	폭탄		
3	프랑스	2	폭탄테러		
2	911테러				

2009년에는 파키스탄, 폭탄테러, 탈레반, 아프간, 예멘,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고, 2010년에는 미, 폭탄테러, G20,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다. 2011년에는 폭탄테러, 이슬람 등의 빈도가 높았고, 2012년에는 이슬람, 미, 런던, 자폭테러 등의 빈도가 높았으며, 2013년에는 미, 예멘,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다. 이렇게 볼 때,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에서 테러 지역은 주로 이라크 등 이슬람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테러 유형으로는 주로 폭탄테러가 기사나 뉴스에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의 경향 분석

1) 2009년 국제테러범죄 사건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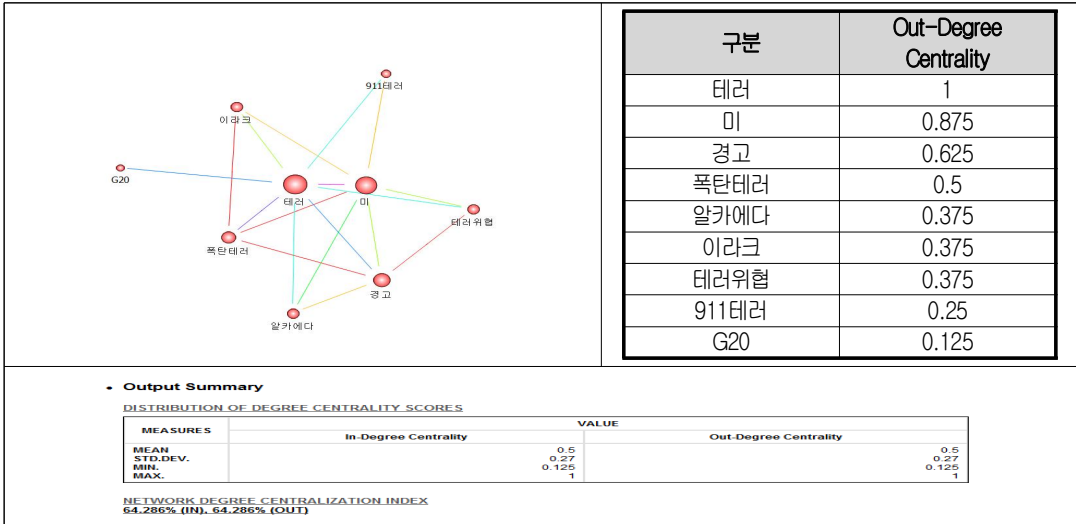
2009년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첫째, “테러”가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둘째, “정부”, “미”, “파키스탄”, “폭탄테러”,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림 1> 2009년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2) 2010년 국제테러범죄 사건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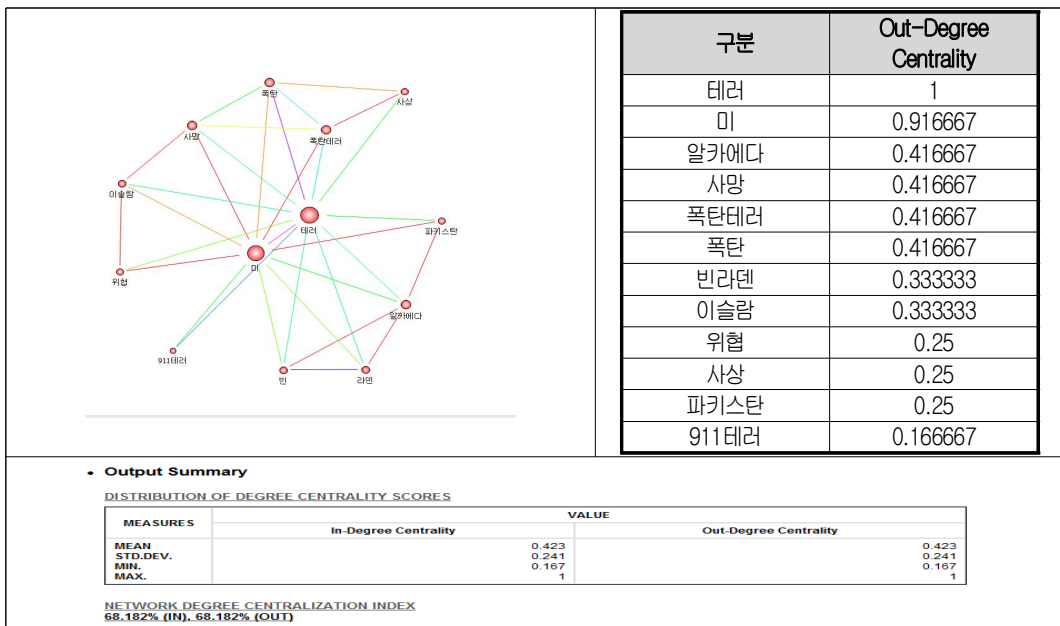
2010년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첫째, “테러”의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둘째, “미”, “폭탄테러”, “알카에다”,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림 2> 2010년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3) 2011년 국제테러범죄 사건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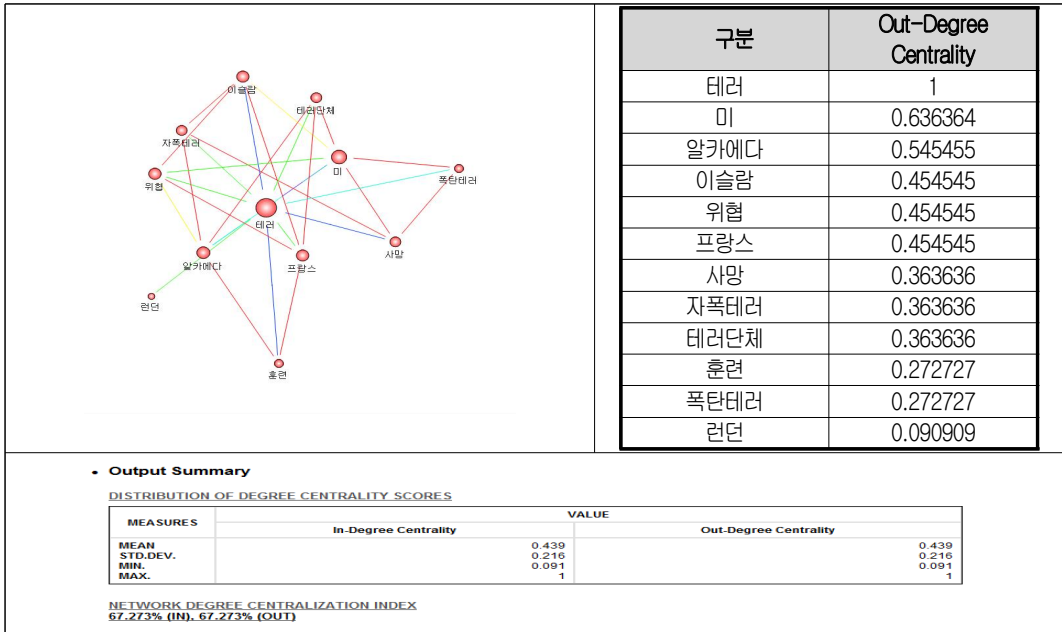
2011년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첫째, “테러”의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둘째, “미”, “알카에다”, “폭탄테러”, “이슬람”, “파카스탄”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림 3> 2011년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4) 2012년 국제테러범죄 사건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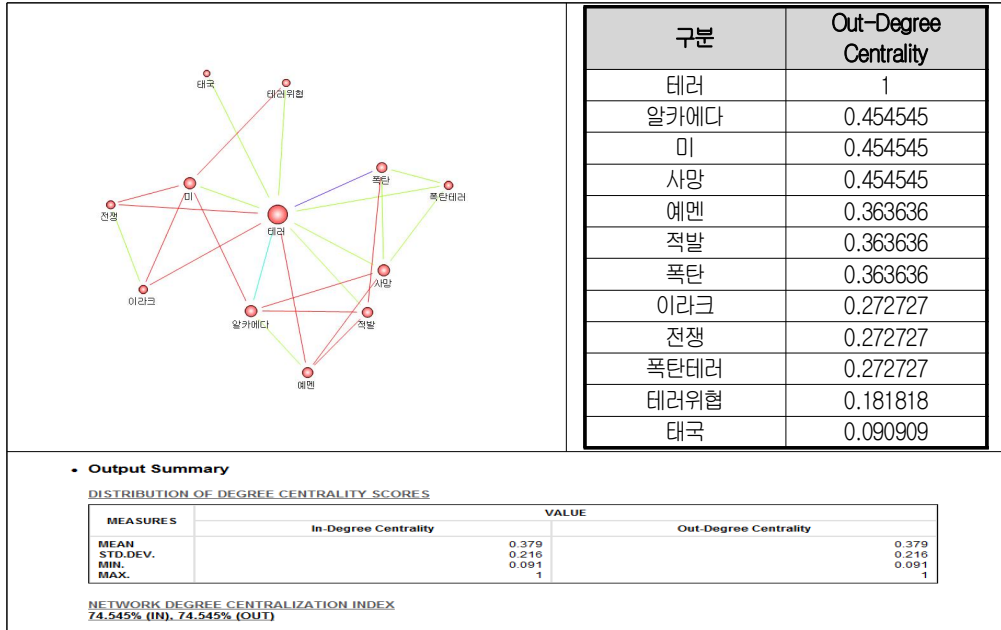
2012년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첫째, “테러”의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둘째, “미”, “알카에다”, “이슬람”, “프랑스”, “자폭테러”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림 4> 2012년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5) 2013년 국제테러범죄 사건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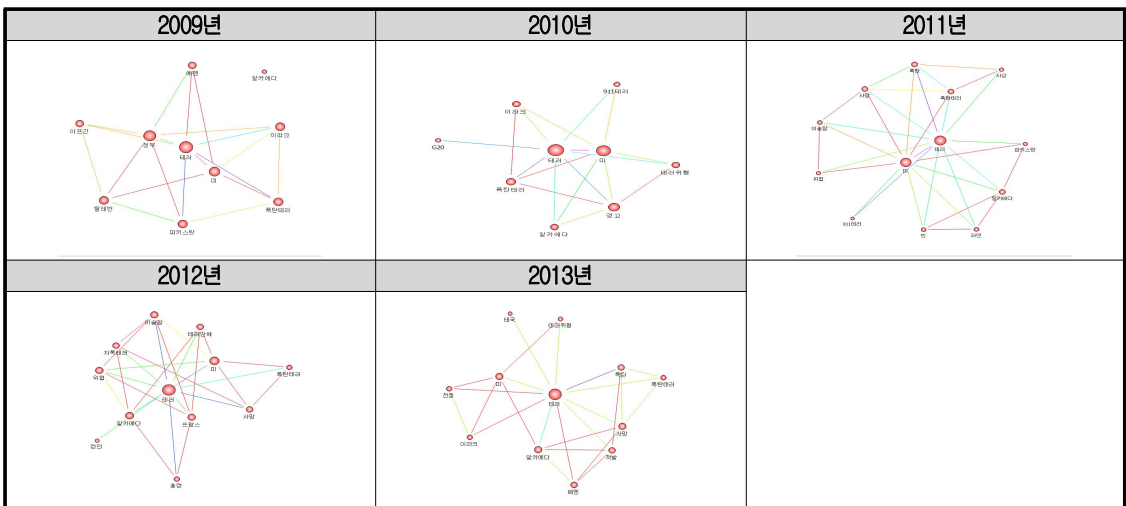
2013년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첫째, “테러”의 중심성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둘째, “알카에다”, “미”, “예멘”, “폭탄”,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다.



<그림 5> 2013년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V. 결론

이 연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국제테러범죄 관련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연구결과의 요약

첫째, 2009-2013년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의 핵심 주제어를 분석해본 결과 우선적으로 테러, 알카에다 등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둘째, 연도별 분석결과를 보면, 2009년에는 파키스탄, 폭탄테러, 탈레반, 아프간, 예멘,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고, 2010년에는 미, 폭탄테러, G20,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다. 2011년에는 폭탄테러, 이슬람 등의 빈도가 높았고, 2012년에는 이슬람, 미, 런던, 자폭테러 등의 빈도가 높았으며, 2013년에는 미, 예멘, 이라크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았다. 이렇게 볼 때,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에서 국제테러범죄 발생 지역은 주로 이라크 등 이슬람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테러범죄 유형은 주로 폭탄테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언어네트워크를 통한 분석결과를 보면, 2009년에는 “테러”가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정부”, “미”, “파키스탄”, “폭탄테러”,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다. 2010년에는 “테러”가 중심성 분석결과가 가장 높았고, “미”, “폭탄테러”, “알카에다”,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다. 2011년에는 “테러”가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미”, “알카에다”, “폭탄테러”, “이슬람”, “파카스탄” 등의 빈도가 높았다. 2012년에는 “테러”가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미”, “알카에다”, “이슬람”, “프랑스”, “자폭테러” 등의 빈도가 높았다. 2013년에는 “테러”가 중심성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알카에다”, “미”, “예멘”, “폭탄”, “이라크” 등의 빈도가 높았다.

넷째,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국제테러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결과 우선적으로 국제테러범죄 발생 지역은 주로 중동지역이었고, 다음으로 국제테러범죄 유형은 폭탄테러가 많았으며, 국제테러범죄 조직은 주로 알카에다에 의한 테러리즘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對)테러리즘과 관련하여 미국도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용학. 2004.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박한우. 2006. 한국어 메시지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소프트웨어의 소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특강자료집.
- 배연석 역. 2001.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사이람. 2010. 넷마니아에 의한 사회네트워크 분석. 서울: 사이람.
- 신준섭·김지수. 2011.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173-203.
- Lim, Elvin T. 2002. Five Trends in Presidential Rhetoric: An Analysis If Rhetoric from George Washington to Bill Clint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2(2): 328-366.
- Pinkley, R. L. 1990. Dimensions of Conflict Frame: Disputant Interpretations of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 117-126.

Rice, R. E. and J. A. Danwski. 1993. Is It Really just Like a Fancy Answering Machine? Comparing Comments and Semantic Networks about Voice Mail.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0: 369-397.

박상호: 동의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논문: 한국 묘지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1999년 2월), 현재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법, 민사법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논문으로는 “미성년자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0)”,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집합건물의 일조권침해의 구제(2011)”, “한·일간 성년후견제도의 비교(2013)” 등이 있다(sanghop@deu.ac.kr).